해설관련 도서 연구반
워크숍(8회)

도서제목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소나무	저자/출판사	전영우/현암사
발표주제	· 우리에게 소나무란 무엇인가? · 소나무를 알면 문화가 보인다.	날 짜	2009. 09. 04
		발 표 자	박 인 숙

발표내용

식물이름 - 소 나 무

과이름 - 소나무과

분포지 - 전국

개화기 - 5월 수꽃-연황색, 암꽃- 붉은색

결실기 - 다음해 9월, 진한갈색 솔방울

용도 - 정원수, 공원수, 약용, 식용, 기구재, 가구재

1, 우리에게 소나무란 무엇인가?

-우리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꽃과 새와 나무는?

-우리문화를 나무에 빗대 말할때는 소나무 문화라고 하였다
그이유는 ?

(한생명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때까지 소나무와 함께 하였다.
소나무가 우리 조상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소나무 아래서 태어나고 소나무와 함께 살다가 소나무 그늘에서
죽는다고 할 정도로 우리선조들에게 특별한 소나무)

발표내용

솔잎의 갯수에 따른 분류

1개 - 단엽송

2개 - 소나무, 곰솔나무

3개 - 리기다 소나무, 백송

4개 - 사엽송

5개 - 잣나무, 섬잣나무

우리나라 소나무

곰솔, 소나무, 잣나무

도입 소나무

스트로브 소나무, 테에다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백송

소나무의 자료

나무중에 우두머리(수리) - 술 - 솔
최상의 소나무 수피 - 용의 껍질, 거북의 등껍질
신라시대의 통나무 - 안압지 출토
고려시대의 고려청저 수송선 - 현종 즉위 2년
소나무 나이세기 - 마디수 + 4~5년
궁궐의 대들보, 군함의 조선재, 임금과 왕실의 관재인 황장목
송진으로 천연방부처리된 황장목이 관곽재로는 최상품
조선3대 기간산업 - 염업, 광업, 면업
겸재 정선의 그림속 소나무 - 매화.동백.수선화 = 봄을 상징
대나무.매화.소나무 = 세한삼우 (익자삼우손자삼우)
소나무(新年)+ 불로초(如意) = 신년에 대한 새해인사
소나무 오행설 - 붉은수피 = 赤, 검은 솔방울 = 黑, 푸른 잎 = 靑,
누른 속고갱이 = 黃, 흰 송진 = 白

소나무 이야기

소나무가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것은 약 6,000년 전으로

소나무를 우리말로는 솔이라 부르는데 솔의 말뜻은

위(上)에 있는 높고(高) 으뜸(元)이란 뜻이다.

가장 우두머리라는 뜻의 수리라는 말이 술에서 솔로 변하였다

소나무는 농경문화의 삶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버릴 것이 없는 나무였다.

소나무는 식량과 연료와 재목과 약제의 공급원이었다.

소나무와 관련된 지명이 619곳에 이르고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 이름도 860건이 소나무이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중요한 보조식품이었다.

불가의 고승들은 솔잎차를 즐겨 마셨으며,

민간에서는 한기를 느끼거나 몸이 허약할 때 솔씨 가루를

꿀에 버무려 먹었다.

솔잎은 '신선들이 먹는 식품이라 장기간 생식하면 늙지 않고

몸이 가벼워지며 힘이 나고 흰머리가 검어지고 추위와 배고픔을 모른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풍습창을 다스리고 머리털이 나며 오장을 편하게 하고

곡식 대용으로 쓰인다'는 [동의보감]의 내용처럼

오늘날에도 솔잎이 젊음을 유지해 준다는 민간요법을 믿는 사람이 많다.

송화다식 - 송홧가루는 예로부터 기를 보호해 준다는 음식으로
꿀에 버무린 송홧가루를 청혈 강장식품으로 만들어 먹었다.

소나무의 새순, 잎, 솔방울, 옹이, 뿌리는 술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

송순주(松荀酒), 송엽주(松葉酒), 송실주(松實酒), 송절주(松節酒),

송하주(松下酒) - 머리를 맑게 하며 중풍과 치매 같은 성인병을 예방
하는 민속주

복령 - 이 소나무 뿌리에 공생하는 외생균균이 만든 혹에서 생긴 것으로
이 혹을 소나무의 정기가 모인 것이라
여겨 좋은 약재로 사용했다.

송이버섯 - 소나무의 외생균근으로 인공위성을 만들어내는 현재에도
재배할 수 없는 신비로운 버섯

송 진 - 한약재로 사용되며, 비행기 연료로 사용되기도 해
일제 강점기에 이 땅의 많은 소나무가 수난을 겪었다.
오늘날도 오래된 소나무 숲에는 당시 송진을 채취한
흔적이 남아있다.

호박 - 땅속으로 들어간 송진이 오랜 세월이 지나 만들어지는 장식재

솔가리 - 땔감이 귀하던 시절 솔가리는 훌륭한 보조 연료였다.

송매(松煤),송연(松烟) -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을 아교로
반죽하여 만든 먹(黑)

솔잎 베개 - 신경쇠약증을 치료할 수 있다,

솔잎 한증 - 신경통이나 풍증을 치료할 수 있다,

송진 가지 - 햇볕에 말려서 붙여주면, '풍습을 없애고 경련을 멈추게 하며
경락을 통하게 한다'

2. 소나무를 알면 문화가 보인다.

송진은 등불의 연료로 사용되었으며(광솔불)

소나무는 집을 짓는 목재로 궁궐, 사찰 등 역사 문화

유적이 거의 소나무로 지어 졌습니다.

솔잎은 약초로 사용되기도 하고 송편을 만들어 먹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소나무와의 맺는 인연을 살펴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삼칠일 동안

잡인의 출입을 금하려고 솔가지를 끼워 금줄을 쳤으니,

이 땅에 살던 우리 조상은 태어난 순간부터 소나무와 인연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땔감으로 땐 솔가지나 솔가리의 연기를 맡으면서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성장하고 소나무에서 나온 생활도구나 농기구와

인연을 맺으면서 소나무와 관련있는 음식(송편,송화다식,송기떡,송엽주)을

먹으며 살다가, 이승을 하직할 때는 송판으로 만든 관에 들어

뒷산 솔밭에 묻혔다.

소나무에서 나고, 소나무 속에서 살다가 소나무 밭에 죽는,

소나무에 의존하던 이런 생활 때문에 우리 문화를

소나무 문화라고 하였다..

발표내용

소나무 4대 해충 - 재선충,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솔나방

1. 솔잎혹파리 -

유충이 솔잎 밑에 벌레혹(충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수액을 빨기 위해 솔잎에 상처를 주면 솔잎은
생장을 멈추고, 그해 안에 색이 붉게 변하면서
마침내 낙엽으로 떨어진다. 심하면 나무가 죽기도 한다.

2. 솔껍질깍지벌레-

주로 해안 지방의 곰솔에 더 큰 해를 끼친다.
깍지벌레 암컷이 곰솔의 줄기껍질 밑에 정착하면
암컷의 부화약충(부화한 작은 벌레)이 가늘고 긴 입으로
나무의 수액을 흡수하여 곰솔에 피해를 준다
3~5월에 가장 심하다.

3. 솔나방

송충이가 우화하여 성충이 된 것이 솔나방인데
이 알은 약 320일 간 유충으로 지내며
다음 해 4월 상순에서 7월 상순, 또는 8월 상순에서
11월 상순에 걸쳐 솔잎을 먹어치운다.

4.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옮겨서 발병한다.
소나무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와 공생 관계에 있다.
하늘소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소나무 몸체에 침입하는데
대단한 번식으로 소나무의 영양분과 물의 이동 통로를
파괴하여 잎을 시들게 하고 종국에는 소나무를 붉게 태워 죽인다.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발병후 1년 안에 주변의 나무가 모조리 죽는 무서운 병충해다.